

지역 소식통

부안군, 60세 이상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70세 이상 부안군민 무료 접종에 이어 올해에는 60세 이상 부안군민 7,588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무료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부안 군민이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군민과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종은 생백신 1회 지원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되며 접종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실(☎ 063-580-3811)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공배달앱
위메프로 3월 특급 이벤트

정읍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위메프로'에서 3월 한 달간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위메프로 이용 고객들은 배달료 할인, 전통시장 특별 혜택,페이백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매일 1회 최대 2,000원의 배달료 할인 쿠폰, 전통시장만 주문 시 최대 4,000원의 배달비 할인, 결제금액의 1%를 페이백 포인트로 적립하는 혜택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신규 이벤트로 정읍사랑상품권을 연동해 결제하면 공공배달앱 페이백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며 3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10%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존 상품권 충전 시 제공되는 10% 선할인 혜택에 페이백 10% 혜택이 더해져 최대 2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출신 독립유공자 6명 서훈

제106주년 3·1절 맞아 고창고등보통학교 재학생이던 윤육하 선생 등 확정

‘106주년 3.1절’을 앞두고 고창출신 독립유공자 6명의 서훈이 확정돼 의향(義鄕) 고창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가보훈부가 고창고등보통학교 재학생이었던 윤육하 선생 등 6명을 ‘106주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서훈대상자’로 확정했다.

윤육하 선생은 1929년 6월경 전북 고창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조선인 교사 유임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무기징역 처분을 받고 체포됐다.

이듬해(1930년) 1월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학우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됐다.

선생의 활동으로 1930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교내에 만연했던 조선인 차별 현상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선인 교사를 지키고자 동맹휴학을 일으켜 식민지 교육정책에 저항한 학생운동의 전면을 조망할 수 있었다.

선생과 함께 1929~1930년 고창고등보통학교 동맹휴학 및 독립만세운동을 한 박재우, 양희영, 윤선호, 이영규, 조순욱 선생 역시 이번 계기 대통령포장에 서훈되었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억과 존중의 보훈문화 확산 기반 마련’을 최우

선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역내 독립유공자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순수 군비로 용역을 진행했고, 국가 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외교사료관 등의 소장자료와 일제강점기 당시 판결문 수행인명부, 학적부 등의 자료를 살피기 찾아 21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 이후 국가보훈부 심사기준에 따라 103명의 서훈신청서를 작성하고, 심덕섭 군수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찾아가 신청서를 전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인청년회의소(회장 심우중)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3·1운동, 독립정신 되새겨

정읍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정읍시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태인청년회의소(회장 심우중)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정읍시의회의장·정읍시의회 의원, 최용훈 정읍교육장, 황인형 대대장, 독립유공자 후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3·1

이동해 이어졌다. 안광식 광복회 정읍지회장이 기념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이어 3·1절 노래 제창, 기념사, 만세삼창이 진행됐다. 또한, ‘봉선화’ 무용극 공연, 순태극기 배부, 태극기 게양 캠페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라며 “독립만세운동을 하며 소중한 생명을 바친 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그날의 합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창군, 3·1운동 106주년 기념식 동리국악당서 개최

고창군이 지난 1일 오전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리국악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안규백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고창군의회 군의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단체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순국선열들의 독립 의지와 항일 투쟁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을 계승·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독립선언문 낭독, 심덕섭 고창군수의 기념사, 안규백 의원의 축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념사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던 3.1운동이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이다”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순정축협~송령교 개설공사 본격 착공

총연장 L=483m 왕복 2차선 도로로 확장... 연내 준공 목표

정읍시가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령교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3월부터 본격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0여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483m의 기존 이면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차도 확장뿐만 아니라 보행자 도로 정비,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가로등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전반을 개선한

다. 이를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용역, 토지보상, 관련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도로 개설사업

을 통해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차량·교행 불편이 해소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수당 인상·지원책 추진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3월 시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달 2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은

보비와 인상된 시비를 합산해 참전유공자는 월 14만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12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받게 된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이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

한편 시는 설·추석·현충일에 100명의 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 보훈 10개 단체에 운영·사업비 지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충일 추념식, 광복절 경축식 운영 등 다양한 호국보훈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정읍시는 지난달 27일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사로 이번 캠페인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생활 속 안전 수칙 홍보

에 집중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청 재난안전과를 비롯해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재난안전 관련 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요령이 담긴 홍보

보물과 가정 내 안전점검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방법과 신고 요령을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어 있던 지반이 녹아 약해지면서 옹벽·축대 붕괴, 도로 균열 등 각종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